

혼돈의 정국, 해법을 묻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퇴진 투쟁·거국내각 출범 ‘투 트랙’

인터뷰=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비선 실세’ 최순실씨(구속) 국정 농단 파동으로 인한 혼돈의 정국이 장기화되고 있다. ‘100만 촛불 민심’의 하야 함성에도 청와대는 버티기에 들어갔고 야권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적 역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광주일보의 정지권,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위기의 정국에 대한 해법을 들어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농단 정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이다. 풍부한 국정 경험과 4선의 관록을 바탕으로 원내 3당의 수장으로 여야를 넘나들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정국 해법 등에 대해 물었다.

-국정 농단 정국이 좀처럼 가락이 잡히지 않고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대한 문제다. 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야 및 퇴진을 거부하며 민심에 맞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는 처음부터 박 대통령이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렇듯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민심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정국 해법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대통령의 탈당→여야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담→거국중립내각 총리 추천→최순실 부역 인맥 청산과 내각 조각→검찰 수사·국정조사·특검 결과에 따른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이다.

-정국 타개의 출발점은.

▲정국 타개의 총리 추천이다. 거국중립내각의 출범이다. 그래야 대통령이 하야하는 탄핵되던 간에 국정 공백을 막을 수 있고 대선 일정을 조정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촛불 민심과 야권 주자들은 박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정지권은 촛불 민심과 함께 하면서도 정국 타개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야권은 청와대의 시간벌기 의도에 밀려선 안 된다.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고 미래를 건인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에 나서야 한다. 과거 10·26 사태, 6·10 항쟁 등을 보더라도 야권이 잘못하면 ‘죽 써서 개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 야권의 공조가 문제인 것 같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영수회담 파동으로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일이 꼬이고 있다. 야권의 역할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고 있다. 이번 주는 거국내각총리 선출의 물꼬를 터야하는



거국내각총리, 교황선출 방식으로

潘과 정치공학 연대 호남 용서 안해

野, 당리당략보다 정권교체 목표를

탄핵 장담 못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데 안타깝다. 현 시국에서 당리당략적으로 나서면 안 된다.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 정권교체에 목표를 뒤야 한다. 조금해서는 안 된다. 야권이 스크럼을 짜고 함께 가야 한다.

-거국중립내각의 총리 추천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교황선출방식으로 하면 된다. 하루에 안 되면, 다음날 다시하고 이러다가 3~4일 지나면 민심의 압박에 직면하고 결국 여야 합의 총리가 선출된다.

-조기 대선은 국민의당에 불리하지 않나.

▲지금 유·불리를 따서는 안 된다. 야권의 강한 공조가 없다면 조기 대선은 안 될 수도 있다. 청와대는 하야·퇴진은 없다고 한다. 새누리당 친박은 강하게 버티고 있다. 박 대통령은 변호인을 내세워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버티면 결국 탄핵으로 가는 것 아

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야권 171명에 새누리당에서 40여명 정도가 찬성할 수 있다. 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당의 분열이 전제돼야 한다. 장담할 수 없다. 야권 내에서도 이탈 표가 나올 수 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되면 여권은 대대적인 국면 전환에 나설 것이다. 그때 가서 판을 다시 뒤집기는 어렵다.

-새누리당이 분당될 것으로 보나.

▲분당도 해본 사람이 한다. 야당은 노선과 명분으로 헤어지고 만다. 하지만 여당은 기득권에 길들여졌다. 손해나는 짓은 절대 안한다. 내부에서 치고받을 수 있지만 분당은 쉽지 않을 것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제3지대 연대설도 나오고 있다.

▲반기문 총장의 노선과 철학에 대한 명분한 것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정치 공학적 연대에 나섰다가는 광주가, 호남이 용서하지 않는다.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 가능성은.

▲정국의 유통성이 커지면서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연정이나 연합정부 구성 주장이 급부상할 수 있다. 또 개헌도 계기가 될 수 있다. 호남이 혼돈의 정국을 냉정하게 주시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호남 민심이 뭉쳐서 힘을 모아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권에 가장 접근해 있는 것 아닌가.

▲현재 지지율을 보면 그럴 수 있지만 허상이다. 문 전 대표는 베이스캠프가 없다. 영남과 호남 모두에서 지지받기 어려운 구조다. 지난 총선, 호남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은퇴 발언을 했다고 고백했지 않나. 지난 대선에서 호남이 ‘정치적 섬’으로 고립되면서도 90%를 지지해줬다. 호남을 무시해도 유분수다. 호남 민심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겠는가. 또 그동안 보여준 리더십 등에서 바람을 일으킬 동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선 이전 개헌이 가능한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선을 그으면서 더욱 어렵게 됐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다만, 거국내각 총리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 등 원 포인트 개헌이 될 수도 있다.

-청와대가 하야를 거부하면서 4차 촛불 집회도 심상치 않다.

▲민심의 분노는 더 타오를 것이다. 국민의당도 민심과 함께 한다. 다만 분노한 민심을 억압, 물리적 충돌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년 호남 예산 확보 방안은.

▲김동철 예결위 간사가 철저히 챙기고 있다. 당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tuim@kwangju.co.kr

여수 안포 피조개·해남 송호 전복 광주서도 맛 본다

전남어촌특화센터, 영암마트 본점·용두점 ‘안테나숍’ 오늘 개장

18일부터 여수 안포마을의 피조개, 해남 송호마을의 전복 등을 광주에서도 저렴하게 맛볼 수 있게 된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17일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을 마친 여수 안포마을과 해남 송호마을이 특산물인 피조개, 전복 등을 영암마트(Y-MART) 본점과 용두점에 설치된 안테나숍에서 직거래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6차 산업은 1차 산업인 수산업, 2차 산업의 제조·가공업, 3차 산업의 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을 말한다. 여수 안포마을과 해남 송호마을은 항후 피조개, 전복 등을 가공한 제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안테나숍 설치·운영업체로 영암마트를 선정했다. 영암마트는 본점과 용두점의 수산매장을 전

남어촌특화지원센터 안테나숍으로 운영해 여수 안포 피조개와 해남 송호 전복 등을 집중 판매할 예정이다. 안테나숍은 항후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해 가공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김성진 영암마트 회장은 “지역수산물 유통을 지역기업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테나숍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익도 최대한 어촌에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마트,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 어촌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지난 7월 3자 공동계약을 체결해 앞으로 3개월간 안테나숍을 시범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안테나숍 개장식은 18일(오늘) 오후 5시 영암마트 광주 용두점에서 열린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사회복지 민·관·정 합동워크숍 17일 광주 상무리츠웨딩홀에서 열린 ‘광주사회복지 민·관·정 합동워크숍’에 참석한 윤장현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현 광주복지재단 대표 등 관계자들이 행사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4조원대 광주시 금고 23일 선정

지정심의위원 12명 선정 돌입

광주은행·국민은행·농협 경합

4조원대 규모의 광주시 금고가 오는 23일 선정된다.

광주시가 오는 23일 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4조원대 예산을 맡을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3일 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4조원대 시 예산을 맡을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시 금고 지정심의위원 12명에 대한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심의위원회는 시의회 추천 시의원 2명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각 1명, 금고 업무 관련 민간전문가 2명 등 외부위원 8명과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국장급(2명) 등 내부위원 4명이다. 시의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은 5배수로 추천받아 심의 직전에 추첨을 통해 선임할 계획이다.

2012년 당시 심의위원 수는 10명이었다. 공모에는 1금고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과 2금고인 국민은행, 농협 등 3곳이 참여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 공모한 금융기관은 10분씩 프레젠테이션과 심의위원

질의·응답등을 거친다.

금고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는 선정제안서를 평가해 최고 득점 금융기관과 차점 금융기관을 추려 1, 2금고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게 된다.

다만, 선순위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이 1금고로, 2순위는 2금고를 맡게 된다.

이어 광주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지정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 약정서를 체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확정된 금융기관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시 금고를 맡아 운영한다.

올해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1금고는 4조2900억원, 2금고는 1240억원으로 추산된다. 평균잔액은 4000억원 규모다. 시 금고는 지난 1969년부터 지방은행인 광주은행 독점체제로 운영돼 오다가 2012년부터 복수체제로 전환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